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성취가치의 매개효과

박혜진(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채유정(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PYS)의 중1 패널 데이터 중 제 6차년도(2015년), 고등학교 3학년 총 2,351명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애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청소년의 성취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독과 애정은 성취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성취가치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성취가치를 매개로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독과 애정은 성취가치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나 합리적 설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 및 이후 수행되어야 할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주제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매개효과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우리나라 부모들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순위로 아동,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

* 제1저자: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교수(yoojung.chae@gmail.com)

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청소년의 교육지수는 28개국 중 상위권에 속하였으나, 주관적 행복감은 28개국 중 27위의 순위를 보여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아동기로부터 발달하여 청소년기에 도달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임선영, 2015).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경쟁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환경이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인 안정감 및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더 높고(Baumrind, 1991),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즉, 무관심이나 방임 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유정아, 정익중, 2014). 이와 함께, 과도한 돌봄이나 관심, 즉 과잉간섭과 과잉기대의 경우에도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영민, 임영식, 2013; 서경현, 2013; 허묘연, 2004)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들의 행복 및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질, 행복감, 안녕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라 정의할 수 있다(김신영, 백혜정, 2008; 김지현, 2011; Huebner, 2004). 이는 불변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김민형, 2016).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만족도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효능감(김의철, 박영신, 1999), 학습습관(김은영, 2014), 학업성취결과(성보훈, 윤선아, 2010), 스트레스(강유진, 2008; 윤현영, 2003), 부모 친구 관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발달이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Horstmanshof, Punch, & Creed, 200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대리인이 자녀(아동)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며(허묘연, 2004), 이는 자녀의 삶,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방식, 양육행동 등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며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양육방식 안에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포함

되는 것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이정표 외, 2014). 학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양육태도를 몇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이중 Baumrind(1967)의 분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Baumrind는 애정과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는데, 애정수준이 높고 통제수준이 낮은 ‘허용적 양육태도’, 애정과 통제수준이 모두 높은 ‘권위있는 양육태도’, 애정수준이 낮고 통제수준이 높은 ‘권위주의적(독재적) 양육태도’, 애정과 통제수준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 양육태도’ 등의 네 가지 유형의 양육태도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1998)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능동적 참여, 민주적 지도, 온정, 적대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박성연과 이숙(1990)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등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후 허묘연(2004)은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였다. 문헌고찰 및 내용 타당화를 통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부모의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 등의 8개 요인을 포함하였고, 척도의 점수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병리 및 문제행동이 예측가능하다고 보고하여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등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적인 태도, 방치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좋은 관계일수록, 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승희, 2016; 박영준, 2018; 신혜영, 2015; 정문경, 오은주, 2016; Dew & Huebner, 1994).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 즉, 감독, 애정 및 합리적 설명 등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차진호, 노종숙, 2018), 부모의 돌봄과 지원 등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유영달, 이은지, 2010; 정은선, 조한익, 2009). 반대로,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비밀관적인 태도는 자녀 삶의 만족도 및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기도 하였다(김영민, 김영식, 2013; 박영준, 2018; 신현균, 2002; Dornbusch et al., 1987).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영역을 나누어서 고찰하거나 부모의 양육행동의 전체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도 소수 수행되었다. 먼저,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적, 외적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양육자가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허묘연, 2000).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감독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되기

도 하였으나(신미 외, 2010; 김신경 외, 2014; 차진화, 노종숙,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손보영 외, 2012).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하위 요인 중 애정(허묘연, 2000)은 자녀에게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으로, 자녀중심적으로 존중, 수용해주는 것,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손보영 외, 2012), 부모양육태도 중에서 특히 애정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 보고하기도 하였다(박주희, 2016; 임선영, 2015). 한편,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 하는데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바탕으로 일관적이며 애정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주장을 전달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보영(2012)과 연구자들은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 설명은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합리적 부모 양육유형이 자녀의 만족감 및 적응을 돕거나(이정화, 2001; 정은진, 2002)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신경, 2014; 차진화, 노종숙, 2018)가 나타나 합리적 설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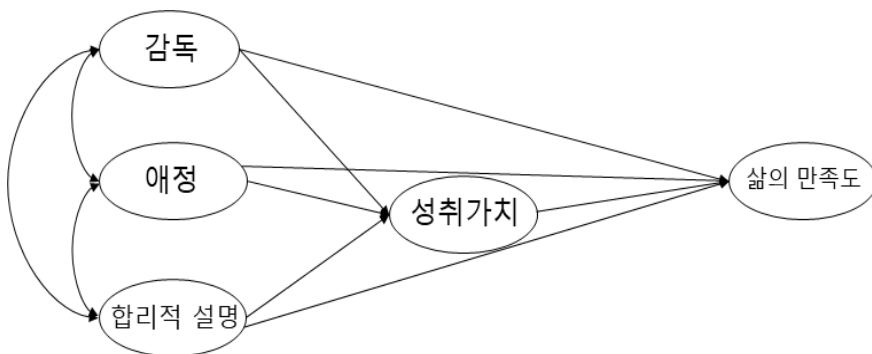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학습습관, 성취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습습관 중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성취가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한 개념이다(Atkinson, 1957). 이는 흥미와 유용성, 중요도 등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이 주어진 과제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Eccles & Wigfield, 2002). 성취가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구해야 하는 목표 또는 이유와 함께 발현되며, 학습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인지, 행동, 정서적인 측면을 조절하게 된다(손병덕, 허계영, 2016). 다시 말해, 성취가치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적요인으로 학교 수업 및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을 형성해준다(김승준, 2019). 이와 같이 성취가치는 과제 수행에 있어 중요한 내적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취가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민동욱, 강한나, 박예원, 2012; 이정표, 장진희, 권동택, 2014; 임선아 2014), 구체적으로, 학습습관 하위요인인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박옥란, 2005).

성취가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김은영(2014)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습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며, 남학생의 경우 학습습관의 하위변인 중 성취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수정과 박혜준(2018)은 한국 중고생의 학업적응 발달과정과 성취가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 및 성취가치가 학업적응 발달과정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성취가치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성취가치를 포함한 학습습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학습습관이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보은, 김은빈, 김정섭, 2017; 김은영, 2014).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행동,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며, 그 결과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과업 성취를 위한 기초적인 내적 요인인 성취가치가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성취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보다 구체적으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그림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청소년의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PYS)의 중1 패널 데이터 중 제 6차년도(2015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1 패널의 표본에서 고등학생 2,35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남학생이 1,041명(44.3%), 여학생이 1,015명(43.2%), 결측치가 295명(12.5%)이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별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학생 수	비율
성별	남	1,041	44.3
	여	1,015	43.2
	합계	2,056	87.5
	결측값	295	12.5
고등학교 유형	일반 고등학교	1,385	58.9
	자율형 고등학교	182	7.7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체육계열	26	1.1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외국어계열	23	1.0
	특수목적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23	1.0
	특성화 고등학교	371	15.8
	기타 학교	2	0.1
	합계	2,012	0.1
	결측값	339	85.6
	계	2,351	100

2. 연구 도구

가.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이 구분한 양육행동 8개 유형(감독, 애정,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 학대) 중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3이하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변수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항점수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감독 Cronbach $\alpha=.797$, 애정 Cronbach=.806, 합리적 설명 Cronbach=.825 로 나타났다.

나. 성취가치

학습습관은 양명희(2002)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 도구 중에서 김세영(2006)이 수정 보완한 총 17문항 중 성취가치 7문항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3 이하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7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85$ 이다.

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척도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모두 0.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 ‘매우 그렇다’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연구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16$ 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 및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변인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수	설문 문항	신뢰도
독립 변수	감독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797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애정	1.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806
		2.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3.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합리적 설명	1.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825
		2.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3.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매개 변수	성취 가치	7	1.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85
			2.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다	
			7.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3	1. 나는 사는게 즐겁다	.816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19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제 공받았으며, 2019년 7월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Mplus 8.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4개의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에 사용된 4개의 변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을 확인 한 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을 도출하였다. 구조 모형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χ^2 와 적합도 지수 RMSEA, CFI, TLI, SRM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마지막으로 경로계수를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및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표 3>).

<표 3> 측정변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감독	2,056	1	4	3.088	.580	-.381	.611
애정	2,056	1	4	3.019	.556	-.398	.747
합리적 설명	2,056	1	4	2.775	.620	-.467	.600
성취가치	2,054	1	4	2.750	.589	-.368	.286
삶의 만족도	2,056	1	4	2.881	.620	-.013	.031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중 감독의 평균이 3.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가치와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750, 2.881로 중간 이상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통상적으로 절대값 기준으로 정규분포 가정 조건(왜도>2, 첨도>4)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 (Hong, Malik, & Lee, 200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변인의 왜도는 -.467에서 -.013, 첨도는 .031에서 .747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분석 전 주요변수들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취가치 또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2. 구조적 관계

가.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60)=944.863$, $p<.001$ 이며, RMSEA는 .049(90% CI, .046-.052)이고, CFI는 .959, TLI는 .951, SRMR=.034로 나타났다. RMSEA가 .05 이하, CFI, TLI가 .90 이상 SRMR이 .05이하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N=2056)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감독	②	.75**																	
	③	.462**	.504**																
애정	④	.402**	.425**	.284**															
	⑤	.313**	.337**	.275**	.441**														
	⑥	.282**	.308**	.275**	.471**	.525**													
	⑦	.271**	.317**	.269**	.426**	.610**	.578**												
합리적 설명	⑧	.211**	.252**	.263**	.392**	.397**	.476**	.453**											
	⑨	.209**	.236**	.244**	.355**	.385**	.473**	.503**	.605**										
	⑩	.262**	.279**	.265**	.357**	.397**	.481**	.490**	.609**	.620**									
성취 가치	⑪	.178**	.158**	.124**	.175**	.154**	.185**	.183**	.154**	.144**	.174**								
	⑫	.138**	.133**	.114**	.156**	.132**	.177**	.174**	.161**	.126**	.153**	.545**							
	⑬	.157**	.154**	.088**	.132**	.128**	.143**	.177**	.130**	.113**	.146**	.469**	.524**						
	⑭	.148**	.160**	.106**	.143**	.142**	.170**	.184**	.130**	.101**	.127**	.469**	.493**	.645**					
	⑮	.119**	.153**	.091**	.110**	.096**	.149**	.138**	.113**	.090**	.143**	.512**	.518**	.466**	.547**				
	⑯	.116**	.154**	.091**	.107**	.118**	.136**	.136**	.101**	.086**	.113**	.483**	.596**	.534**	.550**	.605**			
	⑰	.151**	.132**	.072**	.131**	.127**	.132**	.146**	.097**	.057**	.085**	.385**	.442**	.581**	.618**	.477**	.540**		
삶의 만족도	⑱	.234**	.243**	.169**	.307**	.243**	.259**	.311**	.255**	.218**	.243**	.204**	.213**	.229**	.241**	.155**	.238**	.206**	
	⑲	.072**	.108**	.097**	.164**	.143**	.134**	.208**	.149**	.130**	.150**	.106**	.127**	.100**	.129**	.086**	.128**	.090**	.513**
	⑳	.200**	.229**	.175**	.307**	.276**	.292**	.339**	.234**	.244**	.258**	.187**	.199**	.206**	.220**	.135**	.198**	.198**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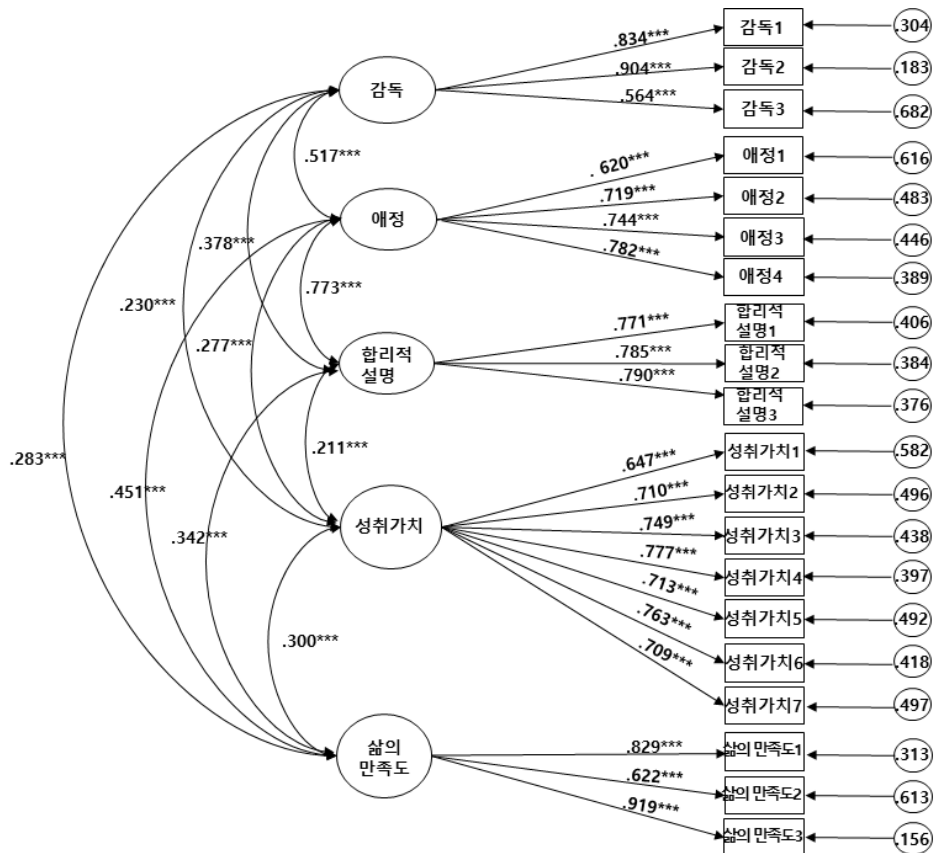
** $p < .01$, * $p < .05$

① 감독1 ② 감독2 ③ 감독3 ④ 애정1 ⑤ 애정2 ⑥ 애정3 ⑦ 애정4 ⑧ 합리적 설명1 ⑨ 합리적 설명2 ⑩ 합리적 설명3 ⑪ 성취가치1 ⑫ 성취가치2
 ⑬ 성취가치3 ⑭ 성취가치4 ⑮ 성취가치5 ⑯ 성취가치6 ⑰ 성취가치7 ⑱ 삶의 만족도1 ⑲ 삶의 만족도2 ⑳ 삶의 만족도3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RMSEA	CFI	TLI	SRMR
측정모형	944.863***	160	.049	.959	.951	.034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나. 연구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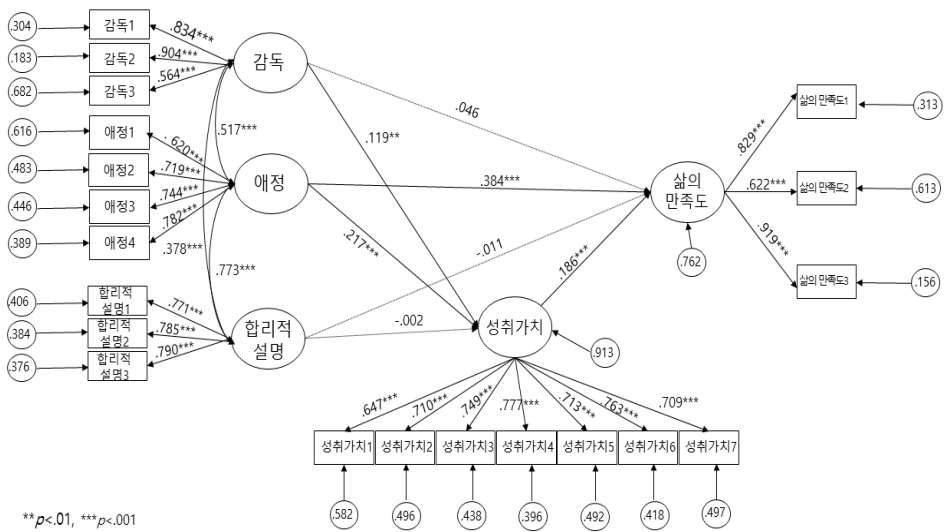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chi^2(160)=944.863$, $p<.001$ 이며, RMSEA는 .049(90% CI, .046-.052)이고, CFI는 .959, TLI은 .951, SRMR=.03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의 적합 도를 보여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RMSEA	CFI	TLI	SRMR
연구모형	944.863***	160	.049	.959	.951	.034

*** $p<.001$



** $p<.01$, *** $p<.001$

[그림 3] 연구모형 결과

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검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성취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첫째, 감독은 성취가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19$, $p<.01$)을 미쳤으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가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정은 성취가치($\beta=.217$, $p<.001$)와 삶의 만족도($\beta=.384$, $p<.001$)에 모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성취가치는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합리적 설명은 성취가치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취가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β

=.18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취가치가 높을 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검증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β)	p-value
감독 -> 성취가치	.102**	.031	.119	.001
감독 -> 삶의 만족도	.044	.034	.046	.196
애정 -> 성취가치	.264***	.076	.217	.001
애정 -> 삶의 만족도	.524***	.088	.384	<.001
합리적 설명 -> 성취가치	-.002	.052	-.022	.969
합리적 설명 -> 삶의 만족도	-.011	.060	-.011	.854
성취가치->삶의 만족도	.209**	.034	.186	<.001

*** $p<.001$, ** $p<.01$

라.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및 애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부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첫째, 95% 신뢰구간에서 감독 -> 성취가치 ->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009~.039로 효과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beta=.022$, $p<.01$)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애정 -> 성취가치 ->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19~.068로 효과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가치의 매개효과($\beta=.040$, $p<.0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설명 -> 성취가치 ->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22~.022로 효과 범위가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감독->성취가치->삶의 만족도	.021*	.007	.022	.009	.039
애정->성취가치->삶의 만족도	.550**	.017	.040	.019	.068
합리적 설명->성취가치->삶의 만족도	.000	.011	.000	-.022	.022

** $p<.01$, *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이 양육행동, 즉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성취가치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중 애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삶의 만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김혜원 외, 2010; 손보영 외, 2012; 최인숙, 2012),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선영, 2015; 박주희, 2016)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있어서 부모의 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긍정적 양육행동에 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과 합리적 설명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했던 선행연구 결과(손보영 외, 2012)와도 일치한다. 부모의 애정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나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태도 및 행동, 논리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청소년기는 성장과도기로서 독립성과 자아를 개발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되 청소년 본인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요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청소년의 성취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독과 애정은 성취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정과 감독이 아동의 학습습관 하위요인 성취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옥란, 2005)와 부모의 감독이 높은 수준의 성취가치 발달 궤적을 예측한다는 이수현과 이강이(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며 자녀를 존중해 줄 때 자녀의 성취가치가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학습의 가

치를 이해하고 학습이 청소년의 미래의 삶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의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지지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합리적 설명의 경우 성취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합리적 설명은 학습습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임선아 2014) 아동의 학습습관 하위요인인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옥란, 2005)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성인기에 근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를 통해 연령대에 따른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성취가치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습관 중 성취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은영(2014)의 연구결과와 성취가치는 학습적응 변화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수정, 박혜준,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를 통해 성취가치를 높일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ISA와 TIMSS 등의 국제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지적인 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이나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현 외, 2014).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낮은 성취가치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또는 양육자들은 앞서 제시한 결과, 즉, 부모의 ‘애정’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애정과 감독이 성취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본인의 진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성취가치를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중 감독과 애정이 성취가치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감독은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취가치를 매개로 했을 때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은 성취가치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는 않으나, 자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취가치 수준을 높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게 되므로 부모의 감독과 애정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 양육행동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합리적 설명은 성취가치를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만족감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신경 외, 2014; 차진화 노종숙, 2018)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손보영, 2012)가 제시되어 합리적 설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혼재됨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손보영(2012)의 연구결과 유사하게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만족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합리적 설명이 긍정적인 부모양육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은 애정과 감독이므로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유념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 및 애정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성취가치를 매개로 설정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부모 애정과 청소년의 성취가치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부모의 감독 또한 성취가치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높은 학구열과 부모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의 보다 애정적이고 온정을 가진 지지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과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면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기대로 힘들어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선정하였으나 이는 연구대상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며, 고등학교 각 학년에 따라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학년 등으로 집단을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매개 변인으로 성취가치만 고려하였으나 이 변인만으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 그리고 성취가치 이외에 다양한 매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구조 모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변인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보은, 김은빈, 김정섭 (2017). 중학생의 학습습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교사교육연구**, 56(1), 94-106.
-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OECD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3년 주기 2012년 기준)순위**.
- 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273-296.
- 김민형 (201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예제와 함께**. 학지사.
- 김수정, 박혜준 (2018). 한국 중고등학생의 학업적응 발달 궤적과 성취가치,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구조관계.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57-158.
- 김승준 (2019). 부모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가치, 행동통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의 예측: KCYPS 자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희 (2016). 고등학생의 개인요인과 학교요인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분석.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 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영민, 김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은영 (2014).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1(2), 1-22.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

- 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 김지현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49-60.
- 민동옥, 강한나, 박예원 (2012).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습습관 간의 관계.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3(2), 65-79.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8, 141-156.
- 박영준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211-234.
- 박옥란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배려, 그리고 학습습관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16).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22.
- 서경현 (2013). 부모의 과잉 간섭과 대학생의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사회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51-71.
- 성보훈, 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 손병덕, 허계형 (2016). 방임·학대 경험아동의 성취가치와 자기관리 형성이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3(9), 305-323.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 비교. **한국 청소년연구**, 12(1), 149-173.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신혜영 (2015).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수준 및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 고교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달, 이은지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91-115.
- 유정아,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 윤현영 (2003). 중학생의 완벽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3), 313-330.
- 이수현, 이강이 (2017).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성취가치 발달패턴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09-134.
- 이정표, 장진희, 권동택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업 성취 간 관계에서 학습습관이 미치는 매개 효과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323-341.
- 이정화 (2001).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 (1998). ‘아버지의 양육태도척도’개발에 관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34-46.
- 임선아 (2014).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과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임선영 (2015).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17, 353-376.
- 정문경, 오은주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83-93.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은진 (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진화, 노종숙 (2018).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와 비특성화고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2(5), 227-254.
- 최인숙 (2012). 중학생 부모 또래 및 교사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 검증” **교육과학연구**, 43(3), 105-12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http://www.nypi.re.kr>.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Atkinson, J. W. (1957).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 Psychological Review*, 64(6), 359-372.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 C. Peterson (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46-758). New York: Garland.
- Dew, T., & Hubner, E. S. (1994).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2), 185-199.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Eccles, J. S., & Wigfield, A. (2002). In the mind of the actor: The structure of adolescents' achievement task values and expectancy-related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15-225.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rstmanshof, I., Punch, R., & Creed, P. A. (2008). Environmental correlates of well-being among final-year high school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0, 101-111.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 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논문 접수: 2019년 8월 26일

논문 심사: 2019년 9월 18일

게재 승인: 2019년 10월 5일

<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value**

Park Hyejin(KAIST GIFTED)
Chae Yoojung(KAIST GIF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lif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value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value, resulting in understanding adolescents and enhancing their life satisfaction.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from the sixth wave panel data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The sample consisted of 2,351 adolescents who were 12th graders in 2015,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to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fe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econd, monitoring and affection directly affected achievement value. Third, achievement value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Lastly, monitoring and affection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using achievement value as a mediator, but reasoning did no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d future study ideas were discussed.

★ **Key word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chievement value, mediating effect